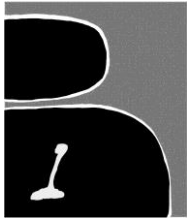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을 밝힌다.



☺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법회 :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첫째주 일요일 11시 : 초하루 기도 및 인등 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11시 : 전법기도 법회 및 찬불가 배우기

☺ 조지아주 애틀랜타 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다섯째주 법회는 없습니다.

- Thanksgiving 법회: 애틀랜타 11월 넷째주 일요일
- 동지 법회: 애틀랜타 12월 셋째주 일요일

☺ **붓다나라 한국 후원회 - (붓다회)**

“미국 붓다나라 한국 후원회 (붓다회)”에서 함께 배우고 정진과 더불어 봉사를 할 봉사단원들을 기다립니다.

☺ - Buddha’s Disciples Zen Meditation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Buddhanara Temple in St. Louis	Buddhanara Temple in Atlanta
☺ Every Tuesday 6:30 pm: Program: Evening Chenting & Meditation	☺ Every Saturday 9am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이달의 법구경

열반을 구하지 않는 사람 갈망이 넝쿨처럼 자라고, 원숭이 과일 없는 나무에서 움겨 다니듯 죽음에서 죽음으로 움겨 다니네.	If a man watches not for NIRVANA, his cravings grow like a creeper and he jumps from death to death like a monkey in the forest from one tree without fruit to another.
---	---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붓다나라 템플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 조지아주 애틀랜타 : 2197 Gravel Springs Rd. Buford, GA 30519

☎ (770) 945-5345

덕숭총림 방장 설정스님 을미년 동안거 결제범어
관습적 욕망 벗어나 철저히 회광반조 하시라

수행자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주관적 욕망과 환상에 몰들어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그 욕망과 환상에 점착되어 있는 한 진리의 길에 들어갈 수 없고, 설사 수행한다 해도 형식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관습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작업이 우선이고, 또한 철저한 회광반조(回光返照)가 뒤따라야 한다.

옛사람이 말씀하시기를 사대육신(四大肉身)은 설법을 하거나 설법을 듣지도 못한다 했다. 또한 허공(虛空)도 설법하거나 듣지 못한다 했다. 다만 눈앞에 형체가 없는 분명한 놈이 있어 설법도 하고 듣기도 한다 하였다. 그 형단이 없는 생명의 실상인 성품(性品)을 옛사람들은 ‘한 물건’이라 했는데 이름도 모양도 없는 그것은 무한한 과거로부터 미래세(未來世)까지 고금(古今)을 꿰뚫고 있다. 작은 먼지 속에 있으면서 온 우주를 다 에워싸고 있으며 안으로는 별의별 신묘(神妙)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밖으로는 온갖 상황에 다 대처한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주인이고 만법(萬法)의 왕이다. 그것은 크고 깊고 넓어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또 높고 높아서 어떤 것과도 짝할 수가 없다. 천지와 삼라만상(森羅萬象)보다 먼저 있었지만 그 시작이 없고, 우주의 두두물물(頭頭物物) 뒤에까지 남아 있어도 그 끝이 없다.

과연 이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부처님께서 이것 하나를 우리중생들에게 일러주기 위하여 45년간 정성스럽게 말씀하셨고, 역대 조사(祖師)와 선지식(善知識)들도 이것을 깨닫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하셨으며,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신고(辛苦)를 마다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안심입명(安心立命)이요 정법안장(正法眼藏)이다. 이것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요 실상이지만 중생들은 안타깝게도 감정이 생겨서 지혜가 막히고 생각이 변해서 본질과는 달라졌기 때문에 삼계(三界)에 윤회(輪回)하면서 가지가지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러기에 주관적 욕망과 환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다. 모든 점착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진아(眞我)는 텅 비어 공(空)한 것이다. 텅 비어 구할 것도 버릴 것도 없는 것이 열반이요, 구할 것도 버릴 것도 없어서 생사(生死)의 구속에서 벗어났으니 해탈이다. 주관과 객관이 무너졌으니 무주무상(無住無相)이라 한다. 그대로 원융(圓融)의 세계요 무애(無碍)의 세계다. 혼연일체(渾然一切)의 경지이다. 이럴 때 수처작주(隨處作主)요 입처개진(立處皆眞)이 되는 것이다.

아! 이 구업(口業)은 언제 끝나나...

뻘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결제 범어

十年端坐擁心性 寬得深林鳥不驚 昨夜松潭風雨惡 魚生一角鶴三聲	십년단좌옹심성 하니 관득심림조불경 이라 작야송담풍우악 이러니 어생일각학삼성 이로다	십년동안 오롯하게 마음하나 끼고 앉았더니 너넉해져 숲속의 새들도 놀라지 않는구나. 지난 밤 송담에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쳤는데 고기들은 한쪽 모퉁이에 우글거리고 학은 두세 번 우는구나.
--	--	---

깊어진 수행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선사께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밝혀서 깨달음의 환희에 젖어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겠지만 거기에 안주한다면 참되다 할 수 없습니다.

큰 깨달음은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자비심을 일으키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불보살님과 역대조사님은 일체중생을 제도하기위한 깨달음이었습니다.

無緣大慈무연대자라는 말이 결코 수고로움을 더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무명업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에 헤매고 있는 중생을 향한 연민심이 바로 보살심입니다.

선사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숲속에서 마음 하나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잊고 앉아 있다 보니 새들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머리위에 앉았다가 어깨에도 앉았다가 날아갑니다.

산 짐승들도 머리로 툭 치고 가기도 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분별심이 있다면 그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定정에 들었는데 비바람이 몹시도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소나무 위에 잠자는 학들은 괜찮은지, 연못의 고기들은 괜찮은지 비바람이 몰아칠 때마다 선정 속에서도 염려하는 마음이 문득문득 일어납니다.

날이 밝자마자 정에서 일어나 연못가에 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들은 한쪽 모퉁이에 바글바글 웅기종기 모여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스님 저희들 이렇게 지난 밤 동안 무사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개울 건너 소나무위 학들이 두세 번 소리 내 우는데 ‘저희들도 무사 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옵니다.

이처럼 미물에게까지 자비심이 일어나는 자기 성찰이어야 합니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자비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직 철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작은 지혜와 얕은 자비심으로 만족하거나 자신을 속여서도 안 됩니다. 이 집안에서는 부처의 길로 통하는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각자의 대신심과 대분심과 대용맹심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오늘 결제는 모든 망상을 내려놓고 용맹하게 그 문으로 들어갔다 무량중생을 제도하기위해 호방하게 다시 그 문으로 나올 준비를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일념화두의 칼날이 어떤 망상의 사슬에도 무디어지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法海行一珠 無色亦無相 日用而無盡 長夜常自光	법해행일주여 무색역무상 이라 일용이무진 한대 장야상자광 이로다	불법의 바다에 굴러다니는 한 개의 구슬이여!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구나. 날마다 쓰고 또 써도 다함이 없는데 기나긴 밤에는 항상 저절로 빛나네.
----------------------------------	---	---

평생 수좌...“첫째도 둘째 셋째도 화합입니다”

특별인터뷰 / 제 11 대 전국비구니회장 육문스님

지난 17 일 서울 법통사 전국비구니회관 회장 집무실에서 만난 제 11 대 전국비구니회장 육문스님. 회장 선거 당시 “비구니 위상과 권익향상, 변화가 첫걸음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던 스님이 인터뷰에서 가장 강조한 덕목은 ‘화합’이다.

“가난을 스승으로 청빈을 배우고
질병을 친구로 탐욕을 버렸네
고독을 빌려 나를 찾았거니
친지가 더불어 나를 짝하는구나...”

“첫째도 화합이고, 둘째도 화합입니다. 세 번째 또 묻는다면 역시 화합입니다.” 지난 13 일 제 11 대 전국비구니회장에 취임한 육문스님은 ‘화합’을 화두로 삼아 비구니회와 중단, 나아가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발원했다. 육문스님은 전국비구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불교신문>과 특별인터뷰를 갖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육문스님과 그의 대답은 지난 17 일 서울 법통사 전국비구니회관 회장 집무실에서 1 시간가량 진행됐다.

“산에서 나물 캐고, 마음대로 좋은 공기 마시고, 밭에 나가 일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대중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부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생각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평생 수좌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육문스님은 전국비구니회장 취임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출가수행자의 본분이 수행이지만 같은 길을 걸어가는 대중의 뜻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같은 배를 타고 깨달음을 향해가는 ‘동주도반(同舟道伴)’의 길을 가겠다고 했다. “웃는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라는 가르침처럼 어렵고 힘들더라도 화합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비구니 승가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님은 평소 즐겨 암송하는 서산대사의 선시(禪詩)를 들려주었다. 제 11 대 전국비구니회를 이끌어갈 회장의 마음가짐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었다.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 불수호난행(不須胡亂行) 금일야행적(今日我行跡) 수작후인정(遂作後人程).” 스님은 우리말로 이렇게 읊었다. “눈 온 들길을 걷는 사람이여, 갈팡질팡 걷지 마라, 오늘 그대의 발자취는 뒷사람의 이정표니라.”

회장 취임식에서 육문스님은 “회칙을 제·개정하는 일에서부터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공약내용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갈 것”이라면서 “안정적인 수행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사회의 현실참여에도 노력을 병행해서 한국사회 속에서 비구니 승가의 확고한 위상을 정립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비구니회장 선거 당시 육문스님은 “비구니 위상과 권익향상, 변화가 첫걸음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통해 5 대 추진과제를 대중에게 약속했다. 스님은 “일하는 전국비구니회로 거듭나겠다”면서 “비구니 승단의 위상과 권익 향상, 비구니 인재 육성, 승가화합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구니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성심껏 살피겠다”는 다짐도 했다.

‘일하는 전국비구니회’를 구현하기 위해 △비합리적 회칙 조항 개정 △집행부 조직 개편 행정능률 제고 △모든 절차 투명하게 공개 △대중여론 반영하는 운영위원회 구성 △본회 지회 교류네트워크 재정비 △재정증대와 자체수익 창출방안 모색 △비구니회관 문호 개방 등을 실천할 예정이다.

육문스님은 “와서 보니 걱정되는 일이 없지 않다”면서 “예전에 운문사 노스님(명성스님)이 살 때는 훈기가 있고 따뜻했는데, 주인의 입장으로 와서 보니 힘든 게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집행부 소임을 맡은 스님들이 공심으로

열심히 일해주리라 믿기에 걱정을 많이 하지는 않는다”면서 “회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전국비구니회를 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취임사에서 “그동안 범룡사라는 비구니회관 건립을 비롯해 크고 작은 성과들이 많았지만, 처음의 설립 취지와 달리 시대에 따라가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서 “비구니 스님들과의 소통 및 구심점이 되어주지 못한 점, 그리고 종단 내에서 열악한 비구니의 위상 등에 대한 반성의 소리도 없지 않았다”고 성찰했다.

이어 “6000여 비구니 스님들도 승가공동체의 한사람으로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때론 따끔한 정책으로 전국비구니회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갈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육문스님은 “물론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면서 “그러나 천리(千里)도 일보(一步)라는 말처럼 꾸준하게 열심히 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낙관했다.

“집행부를 맡은 스님들이 당신들 마음대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회장인 저와) 의논하여 결정이 난 후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젊은 스님들이 잘하고 있지만,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는 만큼 면밀히 잘 살펴 나갈 생각입니다.”

종단과 화합하며 전국비구니회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힌 육문스님은 “선학원 결의문을 대중이 많이 모인 취임식날 발표하는 것이 당연하기에 그렇게 했다”면서 “(선학원에 있는) 비구니 스님들도 우리 식구인 만큼, 선학원도 (종단 방침에 따라) 화합해서 앞으로 함께 불교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1969년 팔공산 양진암에서 처음 방부를 올린 이후 25 안거를 성만한 육문스님은 납자로 대중의 표상이 되어 왔다. 선원에서 3년간 몸을 눕히지 않고 정진하는 장좌불와도 하고, 일체 말을 하지 않는 묵언(?言) 수행을 한 수행자이다.

“참선할 때 말을 자꾸 하면 아무래도 손해가 많다”고 회고한 육문스님은 고담화상(古潭和尚)의 법어 가운데 한 구절을 들려주며 불제자들의 정진을 당부했다. “약욕참선(若欲參禪) 불용다언(不用多言) 조주무자(趙州無字) 염염상련(念念相連), 만약 참선을 하고자 한다면 조주무자를 놓지 않고 계속 공부해야 성불할 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글을 보고 난 뒤에는 되도록 대중과 어울리지 않고 정진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육문스님은 “어느 누군들 수행자가 그렇게 살지 않았겠나”면서 “옛날 어른들이 평생 수행의 길을 걸었듯이, 저 역시 남과 똑같이 부처님 법(法)을 어기지 않고 살려고 노력했다”고 수행자의 삶을 겸손하게 전했다.

그러나 “수행자는 ‘일도양단(一刀兩斷)’할 줄 알아야 한다”고 ‘결단’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래야 부처도 되고 조사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부처나 조사가 되지는 못해도 부처님이 가신 길만이라도 금생에 알 수 있지요.” 육문스님은 “스님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수행하고 정진해야 한다”면서 “우리 스님들이 부처님 법을 지키며 잘 살 때 모든 사람이 스님을 존경하고, 따라온다”고 강조했다.

세파에 시달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남(指南)을 제시했다. “사람들은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똑같이 비가 내리는데, 초목은 크고 작고 다릅니다. 세상 사람의 모든 업은 수행자의 책임입니다. 열심히 잘 사는 사람에게 길이 있지만, 지금 당장 편하려고 하면 길이 없습니다. 자기 힘을 다해서 노력하면 안되는 일이 없습니다.”

대담을 마무리하며 육문스님은 주석처에 걸여 놓고 오가며 늘 보는 글을 전했다. 이름 모를 스님이 지은 것으로 전해지는 ‘참 인생의 길’이 바로 그것이다. “가난을 스승으로 청빈을 배우고, 질병을 친구로 탐욕을 버렸네, 고독을 빌려 나를 찾았거니, 천지가 더불어 나를 짝하는구나...”

육문스님은 ...

1946년 충남 서산에서 출생, 1962년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스님 계사로 사미니계, 1973년 보은 범주사에서 석암스님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69년 팔공산 양진암에서 수선안거이래 25 안거를 성만했으며 제 11대 중앙종회의원, 은해사 백홍암 감원, 군위 범주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비구니선원 선문회장으로 승가교육과 본분납자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 백홍암 회주, 조계종 선원수좌복지회 이사.

-불교신문에서 발췌-

네팔지진참사 복구 프로젝트 I

지진으로 무너진 네팔 학교 다시 세운다

지구촌공생회가 지진으로 무너진 네팔 학교를 다시 세운다. 국제개발협력단체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스님)는 지난 15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네팔 산간 오지마을 신두팔촉 지역에 3년간 20개 학교를 짓는 ‘스무고개 스무학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진으로 집과 학교 대부분이 무너져 공부할 곳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지구촌공생회가 추진하는 ‘스무고개 스무학교’는 2016~2018년까지 3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구호 프로젝트다. 프로젝트 지역인 신두팔촉은 카트만두 시내에서 북동쪽으로 100km 떨어진 오지마을로 지난 4월 발생한 지진으로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낸 곳이다. 80년만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신두팔촉 내에서만 5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600여개 학교와 5100여개 교실 가운데 89% 이상은 붕괴되거나 훼손됐다. 특히 신두팔촉 지역은 도움의 손길이 닿기 힘든 산골짜기 오지마을인데다가 대지진 이후 계속된 여진에 우기까지 겹치며 산사태와 도로 유실 등으로 중장기 복구 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다.

지구촌공생회는 이곳에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순차적으로 재건하는 한편 책걸상, 캐비닛, 학용품 등 기자재를 지원해 개교와 함께 아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하고 어울릴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줄 예정이다. 재건될 학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다양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네팔 피해 지역 주민들은 방과후 교실을 활용해 서로의 종교와 전통, 민족 문화를 공유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게 된다.

월주스님은 이날 사무처장 덕림스님이 대독한 호소문에서 “애민중생여적자(哀愍衆生如赤子)라, 중생을 갓난아기처럼 살뜰히 돌봐 고통 받고 소외된 사람부터 먼저 살피라는 뜻에 따라 갓난아기 돌보듯 강진으로 스러진 네팔에 산골학교를 일으켜 세워달라”며 “네팔 주민과 아이들이 건강한 삶을 꿈꾸고 희망을 일굴 수 있도록 관심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스무고개 스무학교’ 프로젝트 예산은 총 10 억원이다. 현재(9월 15일)까지 네팔 지진 피해 돕기 캠페인을 통해 2억 8600 여만원이 모금됐다. 지구촌공생회는 지진 직후 네팔 현지 지부를 통해 피해 지역에서 긴급 구호활동을 펼쳐왔으며 오는 10월 툼비니 지역 3개 학교 기공식을 앞두고 있다.

네팔지진참사 복구 프로젝트 II

‘스무고개 스무학교’ 3 달만에 12 개 학교 지원금 모금 지구촌공생회 네팔 학교 건립 프로젝트 모금 열기 이어져

지진으로 무너진 네팔 학교 짓기 프로젝트 ‘스무고개 스무학교’ 모금 캠페인이 시작 3 달 만에 12 개 학교 건립 기금을 모으며 훈훈함을 안기고 있다. 국제개발협력단체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스님)는 지난 3 일 “네팔 강진이 발생한 직후 한달 만에 2억 8000 여만원이 모금됐고 지금까지도 후원 회원들의 성원이 그치지 않고 있다”며 “장기 재건 사업인 ‘스무고개 스무학교’ 프로젝트에도 벌써 12 개 학교 건립을 위한 지원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지난 9 월 시작된 ‘스무고개 스무학교’ 프로젝트는 지구촌공생회가 2016 년부터 2018 년까지 집과 학교 대부분이 무너진 네팔 산간 오지마을 신두팔촉 지역에 3 년간 20 개 학교를 짓는 장기 구호 프로젝트다. 지구촌공생회는 최대 피해 지역인 신두팔촉 지역 20 개 마을에 교실 5 칸 규모의 학교 건물 1 개를 각각 건립, 총 20 학교를 순차적으로 재건할 예정이다. 재건되는 학교에는 책걸상, 캐비닛, 학용품 등의 기자재를 지원해 개교와 함께 아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환경과 함께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지구촌공생회는 프로젝트를 위해 지난 10 월 6 일부터 13 일까지 네팔 신두팔촉 지역 현지 답사를 통해 9 곳의 학교 조사를 마쳤으며 그 가운데 3 곳을 선정했다. 지구촌공생회는 앞으로도 현지 답사와 주민들의 자립의지 등을 토대로 프로젝트 대상 마을과 학교를 추가 선정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스무고개 스무학교’ 프로젝트 예산은 총 10 억원이며 후원을 원하는 사람은 후원 계좌(062-070908-01-011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를 통해 동참할 수 있다.

-불교신문에서 발췌-

황금같은 시간 ‘묵언정진’

금해스님 서울 관음선원 주지

고요할수록 깊이 보게 돼
서로에게 더 부드러워져
궁극의 깨달음 아니더라도
삶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 절에 와서 기도, 공부, 수행을 통해 번뇌를 끊고 마음 비운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말로 이루어지니 쉬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닐 때가 더 많다.

일이 많으면 생각과 말이 많아지고, 지치면 서로 부딪히기 마련이다. 절 일이 복잡해지고, 신도들 간의 만남이 잦아질수록, 친해질수록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겼다. 6년 전 처음 묵언수행 기간을 가진 계기였다. 무작정 7일 동안 묵언정진 기간을 공지하고 절에서 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내내 묵언하게 했다. 절 구석구석에 ‘묵언 정진 중’이란 안내문을 붙이고, 수행에 동참한 분들에게는 이 안내문을 목에 걸거나 가지고 다니게 했다.

7일이 끝난 뒤 이야기꽃이 피었다. 어떤 이는 하루, 또는 3일 등등 수행 성취는 다양했다. 처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오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까 하는 마음도 들었다고 한다. 나중에는 가족들이 뭘 하든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며 아예 마음을 비우게 되니, 그 다음부터 아주 좋았다는 보살님들이 많았다.

답답하다는 남편, 잔소리 없어서 좋다는 아이들, 그런 걸 왜 하나는 친구들, 반응은 가지가지였다.

절에서도 복잡한 갈등이나, 각자의 마음에 있던 술한 번뇌들이 수행 기간 동안 사라졌다. 묵언수행에 집중하는 동안 서로에게 일어난 일들이 모두 잊혀졌다. 어려운 수행을 함께 성취한 도반에만 남았다. 이때 끝까지 7일을 모두 성취한 분이 20여명이나 되었다. 그 다음해부터 양력 1월 초에 항상 3일 또는 7일 동안 묵언정진을 한다. 이 기간은 황금같은 시간이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휴일 하루를 잡기도 한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동참한다. 절에 처음 오신 분들도 그날 하루는 묵언해야 한다.

사시기도 시간에 다 같이 참선정진하는 걸 제외하고, 그 외에는 자율이다. 화두를 들거나 명상을 하거나 울력을 하거나 마음대로다. 어떤 분은 2박 3일 동안 아예 절에서 지내며 참선만 하는 분도 있다. 서로 관여하지 않고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한다. 아무런 프로그램도 없다. 그저 인연따라 앉고, 차를 마시고, 구름을 보고, 걷는다. 머리는 비워지고 마음은 채워진다. 이 묵언수행 기간에 우리 절에 처음 온 부부가 있다. 그 후로 우리 절에 열심히 다니며 봉사하는데, 지금까지도 그날 이야기를 한다.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던 그 시간을 잊을 수 없다고 한다. 어느 해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눈을 치우다가, 눈 위를 뒹굴며 소리 없는 웃음으로 가득 채운 날도 있었다. 고요할수록 나를 보는 나는 깊다. 평소 마시는 차 맛, 걸음걸이도, 눈빛도 달라진다. 더 따뜻하고 더 정겹다. 눈으로 주고받는 웃음은 순수하다. 고개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좋다. 이 기간을 지나면 서로에게 더 부드러워진다. 궁극의 깨달음이 아니더라도 삶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작은 수행의 힘이라도 헛되지 않고 우리를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든다. 불교의 마음공부는 세월과 관련이 없다. 길든 짧은 오직 행위로 드러날 뿐이다. 그의 공부는 그의 행을 보면 안다고 했다. 조금씩 나아가면서, 붓다의 길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이며 행복이다. 이 정진 기간 동안 모든 이들이 붓다의 길에서 온전히 행복하기를 발원한다. 그래서 사실, 그 어느 누구보다 삭발염의 한 내게 더욱 소중한 시간이다.

- 불교신문에서 발췌 -

발밀을 살피라

올미년 동안거가 지난달 26 일 시작됐다. 스님들이 불철주야 화두를 붙들고 있을 절집을 생각하면 그곳 섬들에 나란히 놓였을 흰 고무신과 검정 털신이 떠오른다. 그 섬들 곁이나 주련에는 ‘조고각하(照顧脚下)’라는 글귀가 붙어있다. 불자(佛子)가 아니어도 절집을 찾으면 흔히 눈에 띄어 대개 그 뜻을 안다. 발밀을 살피라는 글 뜻에 따라, 드나들 때 잊지 말고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 놓으라는 경구다. ‘조고각하’가 신발 정돈만 잘하라는 말은 아니다. 그 깊이야 짙은 모르지만, 수행 쪽에서는 가닿기 쉽지 않은 심오한 글귀다. 중국 송나라 때 오조 범연선사의 일화에서 나온 말이다. 범연선사가 세 명의 제자와 밤길을 가다가 세찬 바람에 등불이 꺼지자 제자들에게 ‘자,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하고 물었다. 그저 이제 어떻게 길을 찾겠느냐는 물음은 아니다. 수행과정에서 어떻게 해볼 방도가 전혀 없는 칠흑 같은 경계까지 갔을 때 어떻게 돌파하겠느냐는 물음이다. 제자 중 한 사람인, 나중에 벽암록(碧巖錄)을 펴낸 원오 스님이 ‘조고각하’라 답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오로지 자신의 발밀을 잘 살피는 것뿐이라는 의미다. 부처에도 의지하지 말고, 불법에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자신을 살피 그대 안의 불성의 빛으로 나가라는 의미일 것이다. 이번 동안거 결제 때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인 보성 스님이 선원에 들어온 수좌들에게 내린 법어도 이와 같다. “여러분은 당래(當來) 미륵불(彌勒佛)이라, …그러니 따로 저 멀리서 미륵보살을 찾지 말고, 오늘 바로 ‘조고각하’하라.” 불교계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이 말은 쓰인다. 사회나 공동체, 조직에서 문제가 있을 때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의미로 적용된다. 그 점에서 ‘조고각하’는 선종한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이 생전에 펼쳤던 ‘내 탓이오’ 캠페인과 다르지 않다. 자기 성찰에 따른 반성력 없이 남의 탓만 하거나 한술 더 떠 중재를 하려 들면, 이는 설득력도 갖지 못하고 분란만 키우게 되는 걸 정치권을 비롯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가. 최근 조계종은 한국불교 역사 이래 최대의 불사(佛事)라는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에 착수하고, 그 산하 화쟁위원회는 극심한 갈등을 빚는 정부와 노동계의 중재자로 나서는 등 여러모로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런 사이 종단이 운영하는 동국대에서 한 학생이 3 일 현재 50 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고, 다른 학생은 여러 날 고공농성을 벌이다 내려와 ‘투신’을 예고해 놓은 상태다. 보도도 있었지만, 대학 총학생회 간부인 두 학생은 동국대 이사장 스님의 비리 의혹과 총장 스님의 논문표절 의혹, 그리고 이를 감싸는 종단의 개입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여기까지 왔다. 그 진위를 가리는 거야 별도의 문제다. 역사 이래 최대의 불사와 사회 갈등의 중재 노력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경각에 달한 두 학생의 목숨을 구하고 나서의 일이다. 진정한 ‘조고각하’ 연후에 불사이고 중재여야 하지 않겠나. 흐트러졌다가도 항상 바로잡았던, 우리 불교의 자랑인 건강한 성찰력을 기대한다.

- 문화일보에서 발췌 -

일운스님의 쉽게 만드는 도토리묵 이야기

가을에 주운 도토리는 껍질을 벗기고 물에 담궈 아린 맛을 충분히 우려낸 뒤 말려 가루로 빻아 둔 후 묵을 쏜다. 도토리에는 몸 속 중금속을 배출시키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지방흡수를 방해해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이가 약한 노스님들이 드시기 좋은 음식으로 무침은 기본이며 부침과 죽으로도 응용할 수 있어 소개한다.

☺ 도토리묵전 - 재료 : 도토리가루, 김, 김치, 참기름, 부침기름

만들기

- 1) 도토리가루에 물을 1:5로 부어 가루를 불린다.
- 2) 김치는 가늘게 채를 썰거나 길게 찢은 뒤 참기름으로 무친다.
- 3) 도토리가루 반죽을 팬에 펼쳐 구운 뒤 김을 올린다.

4) 한 번 뒤집은 뒤 썰어놓은 김치를 올리고 돌돌 말아준다.

☺도토리죽- 재료 : 도토리가루, 찹쌀가루, 김치

만들기

- 1) 도토리가루는 물과 1:10의 비율로 불린 뒤 끓인다.
- 2) 찹쌀가루는 익반죽 한 뒤 웅심이를 만든 뒤 끓는 죽에 넣어준다.
- 3) 웅심이가 익으면 그릇에 담은 뒤 김치를 곁들인다.

☺도토리묵무침- 재료 : 도토리묵 1모, 채소(치커리, 상추, 쪽갓 등), 김

양념장 : 맛간장 2Ts, 고춧가루 1Ts, 깨소금 1/2Ts, 참기름 1/2Ts

만들기

- 1) 묵은 알맞은 크기로 자른다.
- 2) 채소는 씻어 다듬고 김은 적당한 크리고 자른다.
- 3) 양념장을 만든 후 묵과 채소를 넣어 버무린다.

일운 스님의 Tip

뜨거운 채수와 함께 김치를 곁들여 묵밥을 만들어 먹는 것도 예부터 즐겨먹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단, 특유의 풍미를 주는 짭짤한 맛은 변비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BUDDHANARA TEMPLE (붓다나라) 병신년 정초기도 안내

천 개의 해가 떠서 비추듯
 한없이 맑고 깨끗하신 부처님.
 새해가 열리는 이 아침에 고요히 합장하고,
 저희는 새 모습으로 발원합니다.

무한 공덕의 축복으로 태양은 떠오르고,
 빛나는 생명 지혜, 끝없는 자비 덕성,
 넘쳐 나는 희망과 용기의 햇살이
 찬란히 펼쳐옵니다.

참 생명의 불성 공덕 드러내기 원하오며
 저의 원력 더 큰 지혜와 자비로 빛내주옵소서.
 부처님의 위신력과 가피 속에
 희구하는 착한 일들 원만하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6년 병신년 원숭이 해를 맞이 하여 불자님 가정의 가내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며 새해인사 올립니다.
 아울러 새해를 맞이하여 미국 붓다나라 (영문이름: Buddhanara Temple)에서는 정초삼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정초 삼일기도 (기도 동참비 \$100.00)

세인트루이스 붓다나라 양력 1월 1일 금요일 - 양력 1월 3일 일요일	애틀랜타 붓다나라 양력 2월 5일 (음력 12월 27일) 금요일 - 양력 2월 7일 (음력 12월 29일) 일요일 2월 8일 월요일(음력 1월 1일) 기도도 있습니다.
--	--

병신년 원숭이해에 기도 동참하신 가족들 과 인연있는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가피와 지혜의 힘으로 장애를 뛰어 넘어 인생의 주인이되는 복락을 누리시길 축원 올립니다.
 마음뉘아 날마다 좋은 날 되시옵고, 소원 성취 하십시오.

법회소식 NEWS

- 11월 26일은 미국 추석 명절인 Thanksgiving 이고, 12월 22일은 겨울이 정점이자 밤이 가장길다는 동지입니다.
 애틀랜타 붓다나라에서는 명절을 맞이하여 11월 넷째주 일요일인 11월 22일에 Thanksgiving 법회와 파티를 하고, 12월 셋째주 일요일인 12월 20일에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시라고 동지기도 및 동지팔죽 공양을 합니다.

동지날을 기점으로 낮이 점점 길어지는 작은 새해입니다.

동지날 2016 년도 달력을 배포합니다. (100 부로 세인트루이스 붓다나라, 애틀랜타 붓다나라, 한국 붓다나라 후원회 신도님들과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달력이 충분치 않아서 죄송합니다.)

- 2016 년 병신년 원승이해 정초 3 일기도 를 봉행 합니다. (기도 동참비 \$100.00)
정초 삼일기도- 회향을 일으키기 위해 일정에 맞추다 보니 부득이하게 애틀랜타는 붓다나라는 2 월 7 일에 미리 앞당겨서 회향을 하지만, 다음날인 2 월 8 일 (음력 1 월 1 일) 월요일에도 정초기도가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붓다나라 양력 1 월 1 일 금요일 - 양력 1 월 3 일 일요일	애틀랜타 붓다나라 양력 2 월 5 일 (음력 12 월 27 일) 금요일 - 양력 2 월 7 일 (음력 12 월 29 일) 일요일 2 월 8 일 월요일(음력 1 월 1 일) 기도도 있습니다.
--	--

- 연말과 정초기간중인 2015 년 12 월 26 일부터 2016 년도 1 월 9 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정진하던 참선법회는 쉽니다. 2016 년도 1 월 16 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 Santa Clara University 에 입학하는 붓다나라 장학생 이지민 (Michelle Lee)학생이 재미 한국불교에서 수여하는 제 13 회 장학생에 선발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 애틀랜타 붓다나라 지붕불사와 달력불사 동참 감사합니다. 지붕수명이 다 된 관계로 비가오면 물이 새서 천정에 얼룩이 지고 천정아래로 물이 떨어지던 문제점을 말끔히 해결되어 쾌적한 실내환경으로 거듭났습니다.
◇ 지붕 총 공사비는 \$11,000 이 들었고, \$11,100 이 모금되었습니다.
◇ 2016 년도 달력불사는 \$130.00 이 모금되었습니다. (기금이 부족한 관계로 2016 년도에는 100 부밖에 제작하지 못했습니다. 여유 달력이 없기때문에 한 부씩만 가져가 주셨으면 합니다.)
모금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붓다나라 법요집을 법보시로 약 80 여개 미국사찰에 1 부씩 발송했습니다. 영문과 한글 (통일 예불문)이 실린 법요집을 받아본 사찰들이 현지 미국인 포교에 큰 도움이 된다며 20 부씩 또는 30 부씩 추가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미국에 들어온 수량이 얼마되지 않아 여건이 허락되는대로 상한선을 20 부씩까지 법보시로 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조계종출판사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붓다나라 법요집을 미국으로 모두 들어와야 하지만 발송비가 워낙 커서 기금이 만들어지는데로 미국으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발송법보시 기다립니다.)
- 불사를 동참하면 세세생생 무량한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애틀랜타 붓다나라 템플 도량이 11 월 초 장마로 산책로 나무가 쓰러지고 계곡이 무너지는 등 상처를 내고 지나가는 피해를 봤습니다. 산책로는 현재 폐쇄되었지만 복구가 되고 안전점검이 끝나는데로 개통합니다.
도량 정비불사 동참을 기다립니다. (당장 필요한 금액 \$6,350.00)

이웃의 아픔은 함께 나누면 슬픔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기쁨은 함께 나누면 배가 된다 했습니다. 동체대비 가르침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네팔 지진 참사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돕기 위한 모금을 붓다나라에서 진행했습니다. 모금된 소중한 성금 \$981.00 은 “국제개발 협력 NGO 사단법인 지구촌 공생회”을 통해 네팔 지진으로 폐허가 된 학교를 다시 짓는 건축비로 12 월 4 일자로 한화 일백만원을 송금했습니다. 동참해주신 소중한 인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참고: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 은 현재 아프리카와 한국 국내일들을 하고 있어서 네팔 재건 프로젝트를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 “국제개발 협력 NGO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 로 기부금을 보냈습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첫째주 일요일 (세인트루이스) 과 둘째주 일요일 (애틀랜타)에 있고 매달 동참비는 \$10.00 입니다. 붓다나라 인등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원 이루시길 축원 올립니다.

- ◇ 불사동참
- ◇ 달력불사: 현심행 김설아, 김숙향
- ◇ 지붕불사: 김동희 (Tong Stanley), 무주상, 정혜련

Buddhanara Temple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붓다나라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 불 합 시 다.